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 애도 주체와 현실의 증강, 그리고 '완서학'의 원천

권명아*

차례

1. 점령당한 신체와 증언불가능성의 정동: 역사적 경험과 이론의 원천
2. 생존담을 이어쓰기: 증언과 기념의 정치의 현황
3. 증강 현실적 신체와 대안기념의 정치: GIS(지리정보시스템)와 퀼트, 문학과 증강 현실 기술의 접합과 교차
4. 페미니즘 지리학과 대안기념 정치학의 이론을 위하여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박완서 작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전쟁 상태적 신체의 특유한 양태를 증강 현실적(augmented reality) 신체성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증강 현실적 신체성이 어떤 식으로 변주되거나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김숨의 『한 명』, 티파니 슝 감독의 <어폴로지> 등을 비교 고찰하고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환영이나 유령으로 마주치는 형태를 생존자의 증강 현실적 신체성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논하였다. 또 증언의 불가능성과 애도의 욕망이 생존자의 신체를 증강 현실적 신체로 변형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교 고찰하면서 이를 대안 기념의 이론적 원리로 정립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 증강 현실적 신체의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증강 현실 기술, 지리정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보 시스템(GIS), 위치 기반 서비스(LBS) 등의 기술적 매개를 통해 기존의 기념물과는 다른 형식의 기념 작업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탐색했다.

핵심어 : 전쟁 상태적 신체, 증강 현실적 신체성, GIS(지리정보 시스템), 페미니즘 지리학, 대안기념 저항 정치, 박완서, 한강, 김숨, 티파니 숭

1. 점령당한 신체와 증언불가능성의 정동: 역사적 경험과 이론의 원천

역사적으로 보면 성폭력 생존자의 증언에 대한 논란은 유사한 패턴을 반복한다. 가까운 사례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 여성에 대한 무고죄 논란(때로는 '꽃뱀'으로 매도되는) 사건을 들 수 있다. 남성 연예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된 경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여성에 대한 무고죄 논란이 일고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며 매도하는 혐오발화가 인터넷상에 퍼지는 일이 반복된다. 성폭력을 증언하는 여성의 증언은 처음부터 의심되고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도 관심이 식으면 가해자에 의해 생존자와 증언자가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가해자'로 '처리'되어 버리는 일이 반복된다.[1)]

역사 수정주의자들이나 극우파들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는

1) "'#○○계-내-성폭력' 해시태그를 달고 문학·미술·영화·음악·공연 등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트위터로 알리는 폭로 운동이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 중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대다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이들이 무더기 형사 고소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까지 벌어졌다. 9일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연대 단체 '셰도우핀즈'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시태그 폭로를 이유로 고소당했다'거나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해온 이들이 50여명에 달했다." 「'#문화계-성폭력' 폭로했다가.."명예훼손" 무더기 고소 당한 피해자들」, 『한겨레』, 2017. 2. 9.

것은 성폭력과 학살 생존자의 증언이 의심 대상이 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12 • 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자는 의견이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여러 방식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2016년 한국 사회는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12 • 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공방, 소녀상을 둘러싼 외교적 • 담론적 마찰 등 증언, 애도 정치, 기념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증언과 증언의 해석은 제노사이드 연구와 페미니즘 연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서 경험과 언어의 문제는 페미니즘과 문학 연구의 가장 근본 주제이기도 하다. 연구사적 맥락에서 보면 페미니즘 이론은 혐오발화에 대한 개입을 통해 증언과 관련된 역사적 • 이론적 원천을 매번 현실로 도입하는 역할을 해왔다. 역사 수정주의를 혐오발화의 문제로 개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비롯된다.[2)]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생존자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앞뒤가 다르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 생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곤 했다. 하지만 폭력의 경험을 앞뒤가 맞게, 사실관계와 인과 관계에 따라 기술해야 하는 것은 생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 폭력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보고하는 말(reported narrative)은 명징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생존자의 경험을 가린다. 그렇다면 경험 그 자체를 명징하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투명하게 말한다는 건 무엇일까? 과연 그것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은 학살과 증언, 폭력의 경험과 글쓰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사유의 궤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프리모 레비나 카프카, 주디스 버틀러나 지젝, 아감벤 등의 사유는 학살과 증언에 대한 사유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주 호출된다. 물론 여기에는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그 한가운데 있다. 2차 세계 대전의 경험과 이어진 내전의 경험은 국제 질서와 동아시아의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지만, 세계 대전과 내전의 경험을 담은 비서구의 여러 기록과 사유는

2)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정치 비교역사 연구」, 『역사문제연구』 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11-45쪽 참조.

우리 자신의 주체화를 성찰하는 상징적, 철학적 준거로 여겨지지 않는다. 전쟁과 내전과 학살로 얼룩진 한반도에서 그 경험을 사유하기 위해 홀로코스트의 경험과 9.11 테러의 경험은 '보편적'으로 간주하지만, 한국 전쟁과 한국 근대사의 과정에서 진행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경험을 담은 서사는 사유의 원천에서 자연스럽게 망각되고는 한다. 이 연구 주제에 박완서를 불러오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이 연구는 박완서 작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전쟁 상태적 신체의 특유한 양태를 증강 현실적(augmented reality) 신체성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이러한 증강 현실적 신체성이 어떤 식으로 변주되거나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김숨의 『한 명』, 티파니 슝 감독의 <어폴로지> 등을 비교 고찰하고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환영이나 유령으로 마주치는 형태를 생존자의 증강 현실적 신체성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또 증언의 불가능성과 애도의 욕망이 생존자의 신체를 증강 현실적 신체로 변형하는 일련의 과정을 비교 고찰하면서 이를 대안 기념의 이론적 원리로 정립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증강 현실적 신체성이 대안 기념의 이론적 원천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로 <보더 메모리얼(Border Memorial)>을 비롯한 GIS 기반 대안 기념 정치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국경에서 살해된 이들을 추모하는 대안 기념 공간인 <보더 메모리얼>과 위치기반 서비스와 퀼트, 오큐파이를 결합하여 성폭력 생존자를 추모하는 대안 기념 작업 <모뉴먼트 퀼트(Monument Quilt)>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박완서 작품에서 문학적으로 탐색되고 구현된 증강 현실적 신체성을 증강현실 기술과 위치기반 서비스 및 GIS 기술을 통해 구현된 사례와 비교 검토하면서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증강 현실적 신체성이 대안적인 대안기념 정치의 새로운 이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2. 생존담을 이어쓰기: 증언과 기념의 정치의 현황

폭력의 경험과 기억, 글쓰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사적으로는 기억과 기념에 대한 논의는 기념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제노사이드 연구가 국가나 관 주도의 기념사업과도 깊은 관련을 맺게 되면서 학살의 기억이 제도화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념(commemoration)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진행되었다.[3] 기념 연구는 기념과 제도화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데 집중되었으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 대안적인 '기념'을 모색하는 연구 작업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소녀상 문제가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대안 기념의 방법에 대한 학문적이고 이론적 개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소녀상과 관련된 논란은 기념과 제도화, 대안기념 저항 정치에 대해 기존에 진행된 연구의 이론적 축적을 배제하고 마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소녀상을 비판하는 진영의 전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또 소녀상 논의가 한국의 지식계를 '과도한 민족주의'로 일반화하면서 한국에서의 학문적 성과를 배제하는 지적 식민주의를 반복하면서 이런 논의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해시태그 운동으로 상징되는 반성폭력 운동에서도 성폭력에 저항하는 증언과 담론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시태그 운동과 생존자의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된 <참고문헌 없음>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페미니즘 운동과 증언의 정치가 처한 현재의 난국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비판과 해시태그 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계간지 『문학과 사회』는 2016년 겨울호 #문단 내 성폭력 특집 코너를 꾸

3)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책세상, 2009, 11-45쪽 참조.

려서 고양예술고 교사(시인)의 성폭력 대응 기구인 <탈선>의 기록을 비롯하여 관련 글을 게재했다.[4] 그리고 잡지 『문학3』이 주최한 '문학몹' <#문단-내-성폭력, 문학과 여성들>이 2017년 2월 열렸다. 이후 <참고 문헌 없음> 프로젝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이에 간접적으로 참가한 단체 '페미라이터'가 해산하였다. 이 과정은 성폭력, 증언, 기록과 연대, '기념'과 문학 제도와 관련하여 페미니즘 연구가 사유해나갈 여러 문제를 남겨놓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현장 사이가 너무나 멀고 또 실제 삶에서 부대끼는 성차별과 젠더 이슈에 대해 학문적 연구의 성과들이 유효한 방법론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진행된 페미니즘 연구들이 적지 않음에도 한국 페미니즘은 매번 이론적 원천의 빈약함에 시달린다. 이는 페미니즘 이론의 역사와 현실 사이의 낙차라는 점으로도 숙고해볼 문제이다. 대중 담론 차원에서 페미니즘은 최근 '원년'이라고도 이야기된다. 그러나 페미니즘 실천과 이에 대한 연구사의 차원에서 볼 때 현재 페미니즘은 '제도화의 한계와 딜레마'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지속하였으나 이는 페미니즘만의 문제라기보다 이른바 진보 운동의 제도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페미니즘 운동과 국가의 관계를 제도화와 자율성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도 제기되기도 했다.[5]

제도화는 페미니즘 운동 차원뿐 아니라 소수자 정치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국가 주도의 기념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항의 경험과 기억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이후의 후속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국가 폭력

4)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6 겨울호, 147-216쪽.

5) 대표적으로는 신상숙,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한국여성학』 2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7,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여성학」, 2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8, 또한 3.8 여성행진에 대한 신상숙의 논문은 한국에서 '페미니즘과 기념'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 경험, 기억, 글쓰기를 중심으로 진행된 제노사이드 연구나 페미니즘 연구는 이후 탈식민주의나 글로컬 페미니즘의 연구 주제로 변화되었다. 탈식민주의나 글로컬 페미니즘의 논의는 이후 전 지구적 공간 정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논하는 페미니즘 지정학이나 비판지리학, 스케일 정치 등의 논의로 이어졌으나, 이는 모두 이론의 소개에 그치고 있다.[6]

또한, 한국의 여성 문학은 문학관, 기념관, 교과서에 박제되어 지금, 이곳에 팽배한 페미니즘 텍스트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여성 문학 자체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는 학문적 실천과 대중적 요구 사이의 낙차나 학문적 결과물이 유통되거나 '고립'되는 경로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 페미니즘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산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여성 문학에 대한 학문적 실천의 역사를 이어 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글에서 애도 네트워크와 대안기념의 저항 정치를 논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어쓰기와 지속가능한 재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관련이 깊다. 생존담의 역사를 이어 쓰는 새로운 이론과 실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의 생애사 기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증언과 기억, 기념과 저항 정치를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논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와 12 • 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후하여 '위안부'(일본군 전시 성노예) 피해 경험과 증언, 기억과 기념에 대한 논란은 과열되었다. 이 시기 전례 없이 많은 '위안부' 관련 작품이 생산되었다. 관객이 미리 투자 해서 제작과 배급에 성공한 유례없는 작품인 <귀향>[7]

---

6) 정현주,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호,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 283-300쪽.
황진태 • 정현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대한지리학회지』 50호, 2015, 대한지리학회, 123-139쪽.

7) 조정래, <귀향>, 2015.

은 재현의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8] 이후 드라마 <눈길>이 영화화되었고[9], 티파니 슝 감독의 <어폴로지>가 개봉하였다.[10] <어폴로지>는 지금까지의 '위안부' 서사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특히 증언과 기억, 기록자와 '기념', 애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위안부 서사에 중요한 전환을 보여준 또 다른 작품인 김숨의 장편 소설『한 명』과 <어폴로지>를 비교 분석해보면서 증언과 저항의 정치를 둘러싼 새로운 변화 지점을 논해보자.

> 그녀는 16절지 크기의 신문지 쪼가리를 집어 들고 소리 내 읽기 시작한다. 신문지 쪼가리 한쪽에는 늙은 여자 사진이 흑백으로 실려 있다.[11]

김숨의『한 명』은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인용'하면서도 '인용'과 '보고'로 환원되지 않는 그녀들의 경험을 언어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증언의 '인용'은 폭력의 경험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용'과 '경험' 사이의 환원 불가능한 낙차와 간극을 가시화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실제 증언은 '인용'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근거로 전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용'이 닿지 않는 경험의 고유성과 그 잔여를 확인하도록 만든다. 즉『한 명』에서 '인용'은 증언의 사실성을 확증하고 그렇게 기록된 언어를 통해 그녀들의 피해 경험을 확증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록자가 인용을 반복해도 도달할 수 없는 실제 경험

---

8) 필자는 다른 글에서 "<귀향>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귀향>을 영화로 관람하고 비평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나 입장과, <귀향>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지지하고 보러가는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이 좁혀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한 바 있다.「대중 혐오와 부대낌의 복잡성」,『문학동네』23, 2016 여름호, 1-9쪽.

9) <눈길>은 2015년 KBS에서 특집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2017년 영화화되었다. 드라마를 만든 이나정 감독이 영화 연출도 맡았다.

10) <어폴로지>(티파니 슝, 2016)는 길원옥(한국), 차오(중국), 아델리(필리핀) 3인의 위안부 피해자의 삶의 일상적, 정치적 순간을 곁에서 함께 한 감독의 작업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11) 김숨,『한 명』, 현대문학사, 2016.

사이의 간극, 즉 언어화될 수 없는 간극을 가시화하는 데 주력한다. 여기서 증언의 인용은 단지 '보고된 언어(reported narrative)'를 확인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한 명』은 피해 생존자의 삶이 보고된 언어로 환수됨으로써, 폭력의 경험과 그 이후의 삶이 소거되는 지점을 문제시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티파니 슝(Tiffany Hsiung) 감독의 <어폴로지Apology>이다. 처음 등장할 때 그녀들은 "신문지 쪼가리"에 등장하는 사진의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반복한다. 어쩌면 우리는 내내 그녀들을 뉴스에 등장하는 이미지나 역사 논쟁 속의 등장인물로 만나고 전해 듣는다. 그녀들의 삶은 이렇게 내내 리포트 된 채로만 전해진다. 버틀러와 지젝은 폭력의 경험이 이런 방식으로 언어화되는 것을 보고된 담화(reported narrative)의 한계로서 비판한 바 있다.[12] 이른바 사실을 전달한다는 기록은 그것이 당사자의 말을 인용하고 채록한 것이라 할지라도 폭력의 경험을 전달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한 보고된 언어의 한계를 반복한다. 증언의 명료함이나 증언과 사실관계를 매번 조회하고 심문하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폭력의 경험을 남김없이 보고할 것을 증언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보고된 언어의 한계를 직시하지 않는 한, 언어를 다루는 자는 보고된 언어를 사실로 확증하면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매번 보고된 언어에 가두고, 보고될 수 없는 그 너머를 차압하면서 이들의 삶도 차압한다.

"홀로코스트 이후 서정시를 쓸 수 없다"는 브레히트의 진단이 오래 지속하였으나 폭력의 경험은 '시적인 것'을 더욱 요구한다는 지젝과 버틀러의 논의는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슬라보예 지젝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이나, 테러 이후 생존자의 증언 등 증언의 형식을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전달받는' 진실의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히려 이러한 증언이

12) 슬라예보 지젝 저, 정일권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08, 1-336쪽 참조.
Judith Butler, "Survivability, Vulnerability, Affect",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 New York: Verso, 2009, pp.33-63.

야말로 보고된 담론(reported narrative)이라는 점에서 폭력의 경험을 전달 가능한 형식으로 번역할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젝은 오히려 '시적인 것'이야말로 보고될 수 없는, 번역될 수 없는 고통의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논하기도 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의 시를 분석하면서 보고된 담론의 한계와 시적인 것의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13] 또한, 폭력의 경험과 증언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이제 오히려 "증언의 이중의 불가능성"을 사유하는 단계로 이미 오래 전에 접어들었다. 아감벤이 증언의 이중의 불가능성이라는 명제로 사유했다면 버틀러는 재현 불가능성과 시적인 것, 혹은 곁에 있음(besidesness)이라는 새로운 사유 방법을 이어나갔다.[14]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아주 섬세한 공을 들여서 보고된 언어와 삶의 한계 그 너머로 나아가려고 한다. <어폴로지>에서 보고된 담화에 고정되어 있던 그녀들은 감독인 티파니 슝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러 난관을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신문지 쪼가리"에 보고된 이미지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와, 우리에게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어준다. 귀가 들리지 않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던 카오 할머니와 씨름을 벌이고 목소리를 높이던 티파니와 딸은 보청기를 해드릴 궁리를 하고, 보청기를 하게 된 할머니는 "귀에서 뭐가 조그만 게 말을 해"라며 아이 같은 웃음을 지으시고, 티파니 슝 감독과 살을 맞대며 야위고 늙어버린 그녀의 살을 갖고 논다. 평생 수치심에 자신을 가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아델리 할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쉰다. 수요 집회 영상을 동료들과 함께 보고는, 감격에 겨워하며, "나도 지금 간다!"고 외치던 아델리 할머니의 얼굴은 영화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화로운, 환한 미소로 빛났다.

영화 내내 이 한가운데 길원옥 할머니의 풍자와 해학이 함께 하는 노래 같은 투쟁, 투쟁하며 노래하는 삶과 동료들이 있다. <어폴로지>는 아

13) Judith Butler, 앞의 책; 슬라예보 지젝 저, 앞의 책.
14)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1-264쪽 참조.

시아 전역에 걸쳐 진행된 전쟁범죄와 성노예화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들 곁에 있다는 것, 혹은 그녀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고 감각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어폴로지>에서 감독은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곁에 함께 누워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을 비춘다. 카메라가 그녀들 곁에 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카메라는 길원옥 할머니와 아들이 옆으로 같이 누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곁에 있다. 감독인 티파니 슝은 항상 할머니들 곁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살을 매만지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녀들 곁에 그렇게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나 동료들도 할머니 곁에 그렇게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등을 쓸어주며 길을 나선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그녀들에게 힘이 된다. 아델리 할머니와 그녀의 동료들이 수요 집회 영상 속 또 다른 그녀들을 지켜보며 빛나던 그 눈은 이런 설명 너머에 있는 어떤 경지인 것 같다.

일본어로 혐오발화를 쏟아내는 군중들 속을 꿋꿋하게 헤치고 나아가는 길원옥 할머니와 정대협 동료들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다. 혐오발화로 가득 찬 이 세상, 사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녀들의 존재는 이렇게 서로 곁에 있으므로 맞설 수 있다. 혐오발화의 편에 서 있는 이들이 위안부 생존자와 연대자들이 서로 곁에 있음을 부단히 가치 절하하고 모욕하려는 것이야말로, 이런 맥락에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폴로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맥락에서 "곁에 있음"을 천착한 작품이 김숨의 『한 명』이다. 『한 명』은 316개의 다른 목소리로 연결된 한 명이라는 존재를 우리 앞에 놓아두었다. 한 명의 말이 316개의 다른 말을 불러오고, 그렇게 말이, 존재가 계속 서로를 불러낸다. '한 명'은 누구로도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단수성이자 동시에 매번 그때 거기 함께 있던 존재들로 확장되는 증강되는(augmented) 신체성을 지닌다. 『한 명』에서 생존자인 그녀가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여러 형태로 마주치는 것은 이러한 증강되는 신체성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영화 <귀향>과 <눈길>에서 생존자인 그녀가 돌아오지 못한 동료/친구

를 유령의 형태로 마주치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생존자의 신체성의 고유한 특성, 즉 증강되는 신체성의 함의로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주요 목표는 그간 폭력의 경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신체에 각인된 이러한 특성을 증강 현실적 신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사유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광주 항쟁을 새롭게 조명한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서도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동료를 유령의 형태로 마주치는 생존자의 증강된 신체 감각을 볼 수 있다.

즉 단지 위안부 생존자 서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간 제노사이드 생존 서사에서 이런 유사한 마주침을 반복해서 보았다. 한국 전쟁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령적인 형상들, 무엇보다 박완서의 작품이 줄곧 탐구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생존자의 증강된 신체 감각이었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3. 증강 현실적 신체와 대안기념의 정치: GIS(지리정보시스템)와 퀼트, 문학과 증강현실 기술의 접합과 교차

성폭력 생존자, 성노예화 생존자, 민간인 학살 생존자들이 남긴 자기 서사에서 우리는 생존자의 신체가 폭력의 경험을 통해 변형되면서 전쟁 상태적 신체, 현실 감각의 복잡화, 증강된 신체 감각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생존자의 현실 감각은 일상적인 공간 감각이나 현실 감각과는 매우 이질적인 복잡화되고 증강된 신체 감각을 갖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생존자의 신체, 현실 감각, 현실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감각의 특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실 감각과 신체 감각이 변용되면서 시간 감각 역시 변용되며 과거가 '유령적인 형식'으로 현재화하는 것은 이러한 증강된 신체 감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에 대한 정치적 대립, 소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페미니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애도와 기념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박완서와 증강 현실 기술, 지리정보 시스템과 대안기념의 애도 정치를 연결해서 논의해보려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즉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애도와 기념의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현의 윤리'나 형상화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서 애도 주체의 신체 상태, 현실 감각을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페미니즘 지리학과 페미니즘 GIS(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유용하다.[15]

이 글은 페미니즘 지리학과 페미니즘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통해 대안기념 정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나아가 페미니즘 지리학과 페미니스트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문학 연구에서 구축된 애도 주체에 대한 사유와 접목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국에 페미니스트 지리학을 도입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김현미가 지적하고 있듯이 "젠더화된 공간 속에서 다중적 주체로서의 구체적 여성(들)의 몸의 머묾과 이동을 통해 여성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지리학에서 몸의 시·공간성에 착목한 시간 지리학(Time Geography)과 GIS(지리정보 시스템)의 접목을 통해 주로 구현되어왔다." 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이러한 시간 지리학과 GIS의 결합을 통해 양적/질적 접근법의 이분법을 넘어, 그리고 그

15)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대해서는 몇 권의 중요 저작이 번역 소개되어 있다. 대표 저작은 다음과 같다.
린다 맥도웰 저, 여성과공간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1-444쪽.
돈 미체 저, 류제헌 · 진종헌, · 정현주 · 김순배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비판적 문화지리학』, 살림, 2011, 1-667쪽.
질 밸런타인 저, 박경환 옮김,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사회지리학으로의 초대』, 한울, 2014, 1-507쪽.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번역과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정현주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참조.

간 GIS가 남성 중심적 지식생산 기술이라는 인식을 넘어 페미니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GIS는 (체현된 주체의 몸을 다루는) 시간 지리학과 결합해 '페미니스트 시각화(feminist visualization)'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16)

이 장에서는 박완서가 문학을 통해 지속해서 탐구했던 생존자의 증강된 신체 감각, 복잡화된 현실 감각과 시간 감각의 문제를 페미니즘 지리학의 방법론과 연결해서 논해보려 한다. 또 실제로 증강 현실 기술과 GIS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 애도 네트워크와 기념 작업을 사례로 비교 검토하면서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의 이론과 실제 방법론을 구축해보려 한다. 박완서가 평생 문학을 통해 탐구한 생존자의 신체 감각과 현실 감각은 오늘날 증강 현실 기술과 GIS 기술을 통해 구현된 특이한 애도 네트워크의 정동과 놀랍도록 닮았다. 아니 오히려 증강현실 기술과 GIS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 박완서나 많은 작가가 생존자의 경험을 통해 증강된 신체 감각에 대해 탐구해왔다고 할 것이다. 증강현실 기술과 GIS 기술은 이러한 생존자의 특이한 신체 감각을 '비로소' 모두가 인지 가능한 상태로 구현하는 기술적 방법을 제공한다.

먼저 앞 장에서 살펴본 생존자의 증강된 현실 감각의 문제를 박완서 작품을 통해 다시 살펴보자. 박완서의 작품 세계는 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그 불가능성의 기록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박완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본 자리는 학살 생존자, 증언 불가능성의 정동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야 했던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나목』에서 「엄마의 말뚝」 연작에 이르기까지 학살 생존자의 경험을 담은 작품들에서 우리는 증언 불가능성의 정동과 글쓰기, 그리고 경험과 기억에서의 사실적 재현과 재현 불가능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복잡화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폭력의 경험은 생존자들의 현실 감각을 변

16)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페미니즘의 개념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지금, 동녘, 2015, 491쪽.

용시킨다. 이런 현실 감각의 변용이 '우울증, 정신착란, 사회부적응, 히스테리' 등 병리적 이름으로 명명된 것도 이런 현실 감각의 착란화, 혹은 복잡화를 논의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부재한 결과다. 김숨의 『한 명』에서 그 한 명은 하나의 신체에 여럿의 신체가 교차하고 변용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러 목소리를 매개하는 소설적 의도와도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 감각의 변용과 '다중 신체화'와도 관련된다. 그들은 하나이고 여럿이 된다. 데리다는 이를 애도 과정에 나타나는 납골당적 주체화라고도 명명했지만, 그 이상의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감각의 '착란'과 변용은 「엄마의 말뚝」에서 섬망 증상 속에서 아들이 죽은 그 '현실'을 다시 경험하는 장면에서도 인상적으로 나타난다.

박완서의 경우 평생을 '오빠의 죽음'이라는 한 가지 테마를 반복해서 다뤘다고 평해지기도 하지만, 막상 오빠의 죽음과 그 이후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야 했던 '벌레 같은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기술한 적이 없다. 언제나 기억과 진술은 사실적인 세부를 기록하려는 그 순간, 그 직전에서 멈춘다. 『나목』에서 인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런 현실감각이 변용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고 나는 이 신체를 '전쟁 상태적 신체'라고 명명한 바 있다.[17] 전쟁 상태적 신체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정상 감각, 현실 감각이 되는 상태에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화해 불가능한 두 상태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감각에서 발생한다. 『나목』에서 무너진 고가와 '수복된 서울 거리' 사이의 공간 분할은 이와 같은 화해 불가능한 신체적 상태의 대응물이다. 이러한 신체적 변용 과정은 중요한 두 가지 징후를 동반한다. 첫째는 트라우마의 원천인 경험 그 자체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억과 글쓰기의 딜레마이다. 경아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묘사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지만, 애를 쓸수록 바로 그 시간 앞에서 '현실적 장면'은 소실되어버린다. 폭력적 경험의 사실적 세부가 사라지는 자

17) 권명아, 「전쟁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석당논총』 56집,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3.

리에 번져가는 노란 빛과 '우수수' 떨리는 소리가 자리 잡는다. 이 노란 빛과 나무가 떨리는 소리는 '바로 그 사건'이 있던 순간 경아가 보았던 은행잎의 낙엽과 나목이 울리는 소리였다. 폭력적 경험은 '현실'에서 사실적 세부를 휘발시키고 특유의 정동만을 남겨놓는다. 정동이 현실을 대체하고, 정동이 신체를 장악한다.[18]

정동이 현실을 대체하면서 물질적 현실과 비물질적인 정동적 현실이 분열하고 생존자의 현실감각은 증강 현실처럼 구조화된다. 생존자의 현실은 이렇게 물질적 현실과 비물질적 현실이 혼재하고 겹치게 되고 이들은 항상 언제나 물질적 현실 속에서 '환영'을 마주한다. 그렇게 과거는 현재와 분리되지 않으며 경험은 시간성(과거/현재)의 형식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으로 변형되고 각인된다. 생존자에게 과거의 경험이 현재화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체적 변용을 통해서다. 앞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생존자들이 과거의 동료들을 현재에서 환영으로 마주하는 이런 감각을 이 연구에서는 증강 현실적 신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동이 현실의 사실적 세부를 대체하면서 현실 감각은 증폭되거나 복합적이 된다. 경아는 PX에서 무너진 고가를 오가는 매일, 공포에 떨며 미친 듯이 뛴다. 그리고 그렇게 공포 속에서 떨면서 '수복된 거리'에서 '그날의 거리'를 본다. 역시 사실적 세부는 그려지지 않지만, 그녀는 마치 지도를 그려나가듯이 전쟁이 끝난 현실의 서울 거리에서 바로 그날의 거리의 '환영'을 현실 그 자체로 감각한다. 그래서 경아는 서울 거리가, '여전히' 무섭다. PX와 고가 사이를 오가는 매일매일, 경아는 마치 사진을 찍듯이 지금, 이곳의 현실의 서울 거리 속에 그때 그 시간의 서울 거리를 겹쳐 놓는다. 종전 후 서울 거리에 전쟁 중의 서울 거리가 '환영'으로 겹쳐진다. 『나목』은 바로 이렇게 겹쳐진 현실, 즉 전쟁과 전후라는 화해불가능한 상태의 현실이 겹쳐져 증강된 신체의 기록이다. 『나목』에서 경아가 세계를 보고 감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증강 현실 기술을 통

18) 이런 현상은 박완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살 생존자의 증언 과정과 생존 경험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생존담의 여러 사례는 앞의 글 참조.

해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그런 특이한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존재를 환영과 가상으로 겹쳐보는 바로 그런 증강된 현실 감각이 그것이다.

폭력적 경험에 대한 증언에서 현실의 사실적 세부가 사라지고 특유의 정동이 대체되는 과정은 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반복된다. 또 폭력의 경험이 사라져도 경험이 신체를 변용시켜버려서 생존자들에게는 특이한 현실 감각이 나타난다. 생존자들이 겪는 현실 감각의 복합성은 해석된 적이 없기에 이른바 정상적 현실 감각에서는 '환영'과 '가상' 때로는 유령과 망상의 형태로만 '해석'된다. 장 아메리, 임레 케르테스 등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생존담을 치열하게 남기고, 때로는 자살에 이른 이들이 남긴 기록에서도 바로 이런 현실 감각의 변용과 신체의 변용이 어떤 것인지를 언어화하려는 치열하고도 처절한 고통을 볼 수 있다. 임레 케르테스가 생존자의 자살을 '청산'이라고 부른 것은 변용된 신체와 이른바 정상인들과 '다른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삶의 불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 장 아메리의 '자유 죽음'도 마찬가지다.[20] 프리모 레비의 차가운 글쓰기는 그런 점에서 의도된 '탈-정동' 혹은 '탈-정동'이라는 반죽음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전쟁 상태적 신체와도 상통한다.

엘스페스 프로빈은 프리모 레비의 글쓰기와 신체 감각의 관계를 수치의 정동의 특이성으로 논한 바 있다. 엘스페스 프로빈은 레비의 글쓰기가 지금까지 "목격자 혹은 기록자의 것으로 읽히곤 했으나" 레비의 글쓰기가 지닌 또다른 특성은 별달리 평가되지 못했다고 논한다. 그것은 바로 폭력 생존자의 몸에 각인된, 그때 그곳의 감각, 즉 "피부로(내장으로) 느끼는" 감각이다. 아래 장면에서 우리는 앞서 박완서의 『나목』에서 경아가 서울 거리를 바라볼 때 나타난 현실 감각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레비의 회고에서 레비가 아우슈비츠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바로 객관적 현실과 몸에 각인된 신체 감각이 분열되면서 현실 속에 환영이

19) 임레 케르테스 저, 정진석 옮김, 『청산』, 다른우리, 2005, 1-197쪽.
20) 장 아메리 저, 김희상 옮김, 『자유죽음』, 산책자, 2010, 1-283쪽.

등장하는 증강된 현실 감각이다.

> 1982년 봄에 프리모 레비는 (자기 말에 따르면) 관광객으로 아우슈비츠에 다시 갔다. 다른 수용소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학생들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여행단에 그가 끼여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그 여행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나중에 레비가 회상한 바에 의하면 한 이탈리아 기자가 아우슈비츠 시의 일상성(nomality)의 모습들에서 보이는 부조화를 지적한다. 그는 레비에게 "오늘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겠군요."라고 말한다. 레비는 그의 글을 특징짓는 예의 상식과 섬세한 명료성이 특이하게 혼합된 태도로 대꾸한다. "예, 아우슈비츠에 식당이 있다니 거의 코미디에 가깝군요. 난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제겐 거의 신성해 보이기까지 하고, 좀 부조리한 일이네요. 한편으로 우리는 아우슈비츠가 식당과 극장, 심지어 아마도 나이트클럽까지 있었던 도시였고, 지금도 그런 도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에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지요. 지금처럼 그때도 아우슈비츠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교가 있었지요. '아우슈비츠는 수용소이다'라는 건 지금의 개념인 거죠. 이런 살아있는 자들의 다른 아우슈비츠도 존재하지요"(<생명의 원천>, 2001).
>
> 정신은 극악한 장면 앞에서 팽창한다. 우리에게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그리도 신중하게 들려주었던 레비는 다시 그것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글로서 우리의 현재 중 일부가 되게 만들었던 과거에 둘러싸인 채, 그는 아우슈비츠 사람들이 생활했던 장소이며 분명 거기에는 식당과 나이트클럽과 학교가 있었다고 나직하게 말한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먹고 쇼핑하고 춤추는 장소로서의 아우슈비츠가 갖는 일상적인 실상은 여전히 용인하기 힘들다. 공포의 장소인 레비의 아우슈비츠는 이미 '우리의' 아우슈비츠, 우리의 의식에 유령처럼 출몰하는 수치의 원천이 되어 버린 것이다.[21]

---

21) 멜리사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저, 최성희 · 김지영 · 박혜정 옮김, 「수치의 쓰기」, 『정동 이론』, 아프콤 총서 2, 갈무리, 2015, 147-148쪽.

폭력의 경험과 애도, 혹은 애도의 정치화에 있어서 경험과 증언, 사실적 디테일과 정동의 관계, 현실 감각의 변용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 글은 이런 연구 주제를 제안하기 위한 시론이자 방법론의 전환을 위한 사례 연구이다.

폭력의 경험이 생존자의 신체를 변용하여 증강 현실적 신체로 변용하는 과정과 이를 기록하는 대안 기념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포켓몬 고는 하나의 흥미로운 단초가 되었다. 포켓몬 고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작년 여름의 소동 때문이었다. 냉전의 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현실 감각은 그 여름 잠시 뒤섞였다. 2016년 7월 출시된 포켓몬 고는 2017년 1월에야 한국에서 출시되었다. 한국에서 지도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와 증강 현실 기술을 결합한 포켓몬 고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지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지도 사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포켓몬 고는 출시되었다. 지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은 2016년 7월 속초 지역에서 포켓몬 고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포켓몬 고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속초로 몰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22] 지구에서 유일하게 냉전 섬에 갇혀 있지만, 해외여행과 인터넷 서비스 덕분에 대부분 한국인은 자신의 위치가 냉전 지도에 각인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은 냉전 지도에 봉인된 폐쇄된 위치와 인터넷을 통한 가상적 이동성, 여행을 통한 물리적 이동성이라는 개방된 위치를 일상적으로 모순되거나 분열적으로 감각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상 감각은 오히려 이러한 모순과 분열을 감각하지 않음으로써 형성된다. 2016년 7월 느닷없이 속초 상공에 출현한 포켓몬 고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냉전에 봉인된 위치성과 개방적 위치성 사이의 분열과 모순을 일시적으로 가시화했다. 물론 포켓몬 고 자체에 어떤 정치적 기능도 없지만 증강 현실 기술과 위치 기반 서

22) 「르포 '포켓몬 고, 속초 Go!'…속초는 지금 치열한 격전장」, 『노컷뉴스』, 2016. 7. 1.

비스라는 글로벌한 기술과 냉전 지도에 폐쇄된 한국의 위치성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은폐된 현실 감각을 가시화시켜버렸다.

2016년 포켓몬 고에 이끌린 사람들의 속초 여행은 누군가에게는 낯선 세계로 가는 신기한 경험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전쟁을 일상 속에 매번 감각하던 바로 그 익숙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여로였을 것이다. 프리모 레비의 아우슈비츠 '관광'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사실 그런 점에서 2016년 포켓몬 고 소동은 증강 현실과 위치 기반 서비스가 의도치 않게 가시화시킨 경험과 역사, 증강된 현실 감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우연한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 여름의 소동이 어떤 논의로 이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창조경제에 눈먼 사람들은 또, 한국형 포켓몬 고를 개발하자며 난리를 쳤다. 창조경제의 뒤를 잇는 '4차 산업 혁명' 담론 속에도 냉전 따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 증강 현실과 냉전, 군사적 점령 같은 것을 연결해서 고민하는 것은 망상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망상을 현실로 구현한 사람들도 있다. 존 크래이그 프리만(John Craig Freeman)의 보더 메모리얼(Border Memorial: Frontera de los Muertos)(2015)은 바로 그런 작업이다. 보더 메모리얼은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살해당한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공공예술 작업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 폰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에 기록된 '학살'의 장소에서 '상실된 신체의 잔해'를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다.[23]

보더 메모리얼의 작업에서 증강현실 기술은 매우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물질적인 영토가 국가들 사이의 점령과 지배의 대상이 되면서 영토 내에서, 혹은 사이에서 무수한 희생자를 만들어왔다. 따라서 장소를 점유해서 건축물이나 기념물을 세우는 통상적 기념 방식으로는 물질적 국경을 넘으려다 학살당한 사람들을 애도하는 정치적 함의를 충족하기 어렵다. 점령과 영토분쟁의 영역일 뿐인 현실의 영토는 증강현실 속에서 일시

23) http://hyperrhiz.io/hyperrhiz12/augmented-maps/1-freeman-auchter-border-memorial.html

적으로나마 모두의 것이 된다. 이런 정치적 '컨버전스'를 통해 보더 메모리얼 작업에서 증강현실 기술은 영토적 지배의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정치성을 획득한다. 이는 단지 '4차 산업 혁명'의 산물이 아니고 '점거(오큐파이) 운동'과 같이 물질적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고 이를 저항의 상징적 실천으로 만든 저항 운동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성폭력 생존자들의 해시태그 운동도 온라인 담론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인 제도(문학 제도, 문화제도 등)에 저항하는 오큐파이 운동의 한 사례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수요 집회 역시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 오큐파이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이다. 2011년 '1000차' 수요 집회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평화비(소녀상)는 원래 기념물이었다. 그러나 소녀상 '설치'를 영토 분쟁으로 매도하는 공격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소녀상 설치 운동은 오큐파이 운동이 되고 있다.[24]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측과 지키려는 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녀상의 '재현의 윤리' 문제를 비판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를 소녀성이나 피해자성, 수동성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라는 주장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이래 변주되어 이어졌다.[25] 이런 식으로 소녀상을 피해자성에 대한 집착이나 피해자를 수동적 주체로 재현하는 '재현 윤리' 문제로 비판하는 프레임이 이르게 된 해석의 파국은 위안부 소녀상과 월스트리트의 '용감한 소녀상'을 비교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26] 한국의 소녀상을 수

24) 장정일은 "대사관 주위는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가 금지된 공간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의 대사관 주위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국의 대사관 앞에 설치된 '혐오 • 적대' 시설은 평범한 일본인마저 혐한으로 돌아서게 해주니 말이다."라며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장정일, 「'제국의 위안부' 기소에 부쳐」, 《한국일보》, 2015. 11. 27. 이후 2015년 12 • 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었다.

25) 이러한 식으로 위안부 담론을 해석하는 것이 의도된 프레임을 반복하는 해석의 폭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권명아, 「대중 혐오와 부대낌의 복잡성」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동성으로 월스트리트의 서 있는 소녀상을 능동성으로 구별해서 해석하는 식의 논의는 SNS에서도 종종 등장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미국 내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월스트리트의 용감한 소녀상을 능동적 여성성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서구 여성에 대한 신화, 혹은 신화화된 서구 여성의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27]

소녀상을 피해자성이나 수동성에 매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특정 지식 그룹의 논의는 그런 점에서 수동성과 능동성, 취약성의 이미지와 상징이 저항 정치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매우 단순한 해석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성폭력 생존자를 애도하고 기념하는 모뉴멘트 퀼트와 같은 사례를 참조해 볼 때 취약성의 상징이 저항 정치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단일하지 않다. 퀼트는 여성의 가내수공업 노동의 산물로 취약한 여성 노동의 전형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퀼트는 '이어 붙이기'라는 노동 특성이 결합하여 여성적 연대의 대표 상징이 되었다. 2013년 시작된 모뉴먼트 퀼트(Monument Quilt) 운동은 성폭력 희생자를 위한, 희생자에 의한 쉼터이자 연대 단체이다.[28] 이 단체는 성폭력 역사를 기록하고 생존자를 기리는 차원에서 퀼트를 제작해서 역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 성폭력 현장 지도를 구축하는 '기념' 작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퀼트 지도는 오프라인에서는 오큐파이 방식의 퀼트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여 제작한 퀼트를 미국의 여러 지방이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하고 시위하는 오큐파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상공간과 물질적 현실을 오가는 애도의 네트워크는 최근 소수자 정치의 주요한 상징 실천이자 저항 운동의 방식이 되고 있다.

---

26) 박상현, 「두 소녀 이야기: 두 나라는 왜 서로 다른 소녀상을 갖게 되었을까」, 웹진, 『DEEPER』, 2017. 3. 10.

27) Jillian Steinhauer, "The Sculpture of a "Fearless Girl" on Wall Street Is Fake Corporate Feminism", *HYPERALLERGIC*, 2017.

28) https://themonumentquilt.org/, 연대체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 http://www.upsettingrapeculture.com/

증강현실로 상실된 신체의 잔해를 다시 조합하는 것은 인간 신체의 취약성을 환기하면서 국경을 넘는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소녀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폭력에 노출된 신체의 취약성과 연대를 환기하는 것이다. 점령당한 신체를 애도하는 저항적인 오큐파이 운동의 지구적 사례를 볼 때, 소녀상이 영토 분쟁을 일으킨다고 보는 건 전형적인 점령자의 논리이다.

증강현실이나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 애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저항의 비물질적 거점이 되고, 기술이 정치화되는 곳에 새로운 현실도 열린다. 소녀상과 해시태그는 변하지 않는 견고한 현실의 물질적 영토를 일시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이곳에 불러들이는 상징적 거점이자 입구이다. 냉전이라는 발밑의 현실과 글로벌 테크놀로지, 소수자 정치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거점이다. 29)

4. 페미니즘 지리학과 대안기념 정치학의 이론을 위하여

본 논문은 그간 한국 페미니즘 문학 연구에서 축적된 애도, 증언, 기억과 기념에 대한 연구 작업을 페미니즘 지리학과 접목하여 대안기념의 저항 정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와 한강, 김숨으로 이어지는 국가 폭력과 성폭력의 역사와 경험에 대한 논의를 최근 진행되는 반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포켓몬 고와 소녀상 논란을 경유하여 증언과 글쓰기, 폭력의 경험이 신체에 각인되어 축발되는 신체 상태를 증강 현실적 신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증강 현실적 신체의 현실 감각을 증강 현실 기술, 지리정보 시스템,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기술적 매개를 통해 기존의 기념물과는 다른 형식의 기념작업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탐색했다. 이 연구는 문학 연구와 페

29) 이 부분은 권명아, 「점령당한 신체와 저항의 '오큐파이', 포켓몬고와 소녀상」 (『여성신문』, 2017. 2. 10)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미니즘 지리학, 기억과 증언과 글쓰기에 대한 연구와 정동 연구를 결합하는 시론이다. 또 이를 통해 기존의 기념 방식의 한계를 넘어 페미니즘적인 대안 기념 정치와 기술적 구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보다 진전된 연구를 통해 페미니즘 지리학과 대안기념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고자 하며 여러 남은 문제를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문화계-성폭력' 폭로했다가.."명예훼손" 무더기 고소당한 피해자들」, 『한겨레』, 2017. 2. 9.

2. 단행본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책세상, 2009, 11-45쪽.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페미니즘의 개념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지금, 동녘, 2015, 491쪽.

돈 미첼 저, 류제헌 · 진종헌 · 정현주 · 김순배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 비판적 문화지리학』, 살림, 2011, 1-667쪽.

린다 맥도웰 저, 여성과공간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1-444쪽.

멜리사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저, 최성희 · 김지영 · 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아프콤 총서 2, 갈무리, 2015, 147-148쪽.

슬라예보 지젝 저, 정일권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08, 1-336쪽.

임레 케르테스 저, 정진석 옮김, 『청산』, 다른우리, 2005, 1-197쪽.

장 아메리 저, 김희상 옮김, 『자유죽음』, 산책자, 2010, 1-283쪽.

조르조 아감벤 저,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1-264쪽.

질 밸런타인 저, 박경환 옮김,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사회지리학으로의 초대』, 한울, 2014, 1-507쪽.

3. 논문

권명아, 「대중 혐오와 부대낌의 복잡성」, 『문학동네』, 23호, 2016 여름호, 1-9쪽.

권명아, 「신냉전 질서의 도래와 혐오발화/증오정치 비교역사 연구」, 『역사문제연구』 3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6, 11-45쪽.

권명아, 「전쟁상태적 신체와 슬픔의 공동체」, 『석당논총』, 56집, 東亞大學校 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13, 1-35쪽.

신상숙,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한국여성학』 2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7, 5-42쪽.

_____,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여성학』 2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8, 83-119쪽.

정현주, 「젠더화된 도시담론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서구 페미니스트 도시연구의 기여와 한계 및 한국 도시지리학의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283-300쪽.

황진태 • 정현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대한지리학회지』 50호, 2015, 대한지리학회, 123-139쪽.

Jillian Steinhauer, “The Sculpture of a “Fearless Girl” on Wall Street Is Fake Corporate Feminism”, *HYPERALLERGIC*, 2017. 3. 10.

Judith Butler, “Survivability, Vulnerability, Affect”,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 New York: Verso, 2009, pp. 33-63.

Abstract

Alternative Commemoration and AR bodies

Kwon, Myoung-A

Main focus of this thesis is making new theory of commemoration based on 'the body in the state of augmented reality. The research history of Park Wan Seo, I suggested the new concept 'war static body' as the survivor's subjectivity. In this thesis I try on to relate 'war static body' to the body in the state of augmented reality'.

Key words : commemoration, state of augmented reality, war static body, GIS, LBS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